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9월

(금융완화정책과 엔·달러 환율 전망)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세 주춤	2
2. 무역적자 확대 지속	6
3. 엔고·저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금융완화정책과 엔·달러 환율 전망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무역적자 3개월 만에 감소	16
2.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2.3	112.2*	-
GDP증가율(연율,%)	1.6	△0.1	△7.5	△1.3	1.4	4.5	-1.2(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16.3	17.7	16.2	20.4	16.1	-	-
	공공투자	23.0	24.5	4.2	5.2	7.3	7.2	4.7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0	2.1	4.9	3.5	3.7	0.6	1.1	-
소비자물가	전기비	0.4	2.6	2.3	0.3	△0.1	△0.3	0.2	0.0	-
상승율(%)	전년동기비	0.4	2.6	3.3	3.2	2.7	2.1	0.2	0.1	-
실업율(%)		4.0	3.6	3.6	3.6	3.5	3.5	3.3	3.4	-
수출(조엔)		69.8	73.1	17.6	18.3	19.8	18.9	18.8	6.5	6.7
수입(조엔)		81.3	85.9	20.2	21.2	22.1	20.4	19.1	6.6	6.9
무역수지(조엔)		△11.5	△12.8	△2.6	△2.9	△2.3	△1.4	△0.3	△0.1	△0.3
경상수지(조엔)		3.3	2.6	0.3	1.7	1.4	4.2	3.8	0.6	1.8
환율	달러	97.7	105.8	102.1	104.0	114.3	119.1	121.4	123.8	123.2
	원화(100엔)	1,123	996	1,008.2	987.3	950	923.3	904.7	899	927
금리(10년물,%)		0.72	0.55	0.60	0.53	0.44	0.34	0.40	0.47	0.44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655	15,562	16,660	18,226	20,058	20,404	20,373
										19,919

주: (p)는 2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세 주춤

- ‘15.7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2.2로 전월비 0.1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율 2개월 연속 체로

- ‘15.7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 5,697억 엔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 확대

- ‘15.8월 수출은 5조 8,815억 엔, 수입은 6조 4,511억 엔

□ (환율) 엔고 보합세

- ‘15.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전월과 같은 123.2 엔

* ‘15.8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8원으로 전월비 3.3%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회복세 주춤

□ (경기기조 판단)

- 생산·수출이 2분기의 부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설비투자도 약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주춤
- ‘15.7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는 112.2 전월보다 0.1p 하락
- 경기동향지수 관련 지표 중, 광공업 생산과 중소기업 출하, 상업판매액 등이 하락



자료 : 내각부 * 속보치

- 다만, 일본 내각부는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엔저를 배경으로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도 견조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 경기 전체로서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중국경제의 감속이 아시아 지역 전체로 파급됨에 따라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생산도 일진일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경기 동향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

□ (전 망)

- 최근 경기회복세의 주춤에도 불구하고 ‘15.3분기에는 최악의 2분기 상황으로부터는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민·관의 공통된 전망
- 그러나 여전히 중국경제의 감속과 식품가격 상승 등에 의한 기업·소비심리 악화가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
-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비 1.9p 하락, 5개월 만에 악화

<GDP>

□ '15.2분기 실질 GDP성장을 -1.2%로 수정

- 일본 내각부가 9월 8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GDP성장을 개정치(2차 속보치)는 전기비 -0.3%, 연율 -1.2%로 1차 속보치(전기비 -0.4%, 연율 1.6%)로부터 수정
- '15. 2분기 GDP성장은 상향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3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분기 4.5%의 플러스 성장에서 크게 반전된 것인데, GDP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이 주된 요인
 - 소비는 전기비 0.7% 감소했는데(1차 속보치 0.8% 감소), 엔저를 배경으로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이 계속 되는데다, 임금이 물가상승에 못 미친데 따른 소비자 심리의 냉각과 기후불순도 소비부진의 요인
 - 설비투자도 -0.9%로 1차 속보치(-0.1%)보다 크게 줄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생산 활동의 회복세가 더디고 설비투자의욕이 확대되지 못하는데 따른 것임
 - 수출도 전기비 4.4% 감소함에 따라 외수기여도가 -0.3%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경제의 감속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수출둔화가 주된 요인
- 반면, 주택투자와 공공투자는 각각 전기비 1.9%(동 1.9%) 및 2.1%(동 2.6%)증가함으로써 마이너스 내수기여도 방어에 일조(0.0p)
- 한편, 일본의 10개 민간싱크탱크에 의하면, 3분기에는 실질경제성장이 연율 1.9%의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 경기는 후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p)
전기비			1.1	△2.0	△0.3	0.3	1.1	△0.3
전기비연율	1.6	△0.1	4.5	△7.6	△1.1	1.3	4.5	△1.2
전년동기비			2.4	△0.4	△1.4	△1.0	△0.8	0.8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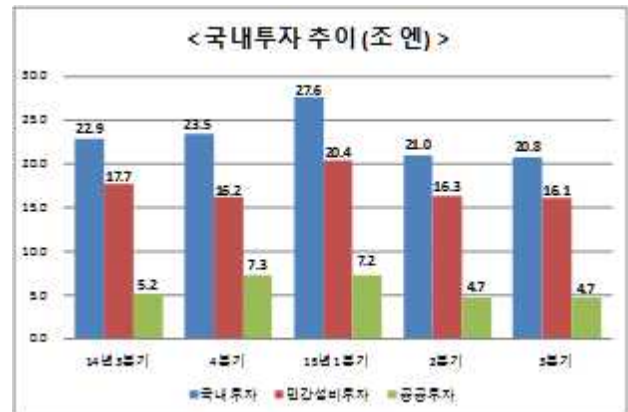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5.2분기 국내투자 실질, 명목 모두 감소

- ‘15.2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0.2% 감소, 명목기준으로는 24.6% 감소한 20.8조엔

□ (민간설비투자)

- ‘15.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5% 감소한 16.1조 엔, 국내투자의 77.4%를 차지
- 현재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수출과 소비부진에 의한 낮은 가동율로 생산설비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갱신목적의 투자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
- 일본은행 단관(단기관측) 등에 의하면 기업수익의 호조와 투자마인드 개선이 투자계획의 증가로는 이어지고 있음
 - 다만, ‘15.7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3.6% 감소



자료 : 내각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공공투자)

- ‘15.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34.2% 감소한 4.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2.6%를 차지
- ‘15.2분기에는 공공투자의 증가율이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내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했으나, 7월과 8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이 줄고 있어 앞으로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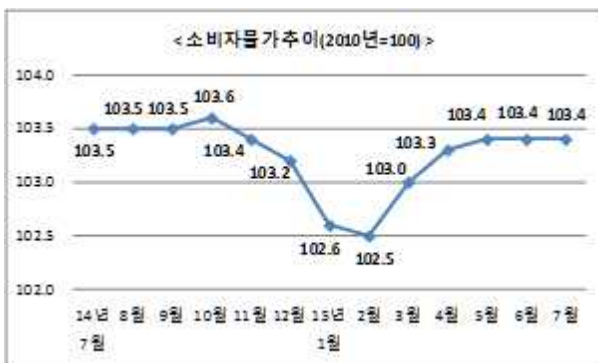
□ '15.7월 소비자물가상승율 2개월 연속 제로

- '15.7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과 같은 103.4로 2개월 연속 0.0%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년 2개월만에 상승세가 멈춤과 동시에,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율도 3개월만에 제로
-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엔저를 배경으로 식료품(생선·식품 제외)가격과 TV 등 내구소비재 가격은 상승
- 앞으로도 당분간은 엔저 영향에 의한 상승압력과 에너지가격의 하락압력에 의해 물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

<실업률>

□ 3개월 만에 실업율 하락

- '15.7월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낮은 3.3%로 3개월 만에 하락
- 완전실업자수는 220만명으로 전월보다 2만명 감소
- 취업자수는 6,378만명으로 전월비 13만명 감소
- 산업별로는 의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감소
- '15.7월 유효구인배율도 1.21로 전월보다 0.02p 상승, 2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적자 확대 지속

□ (총 합) 7개월 만에 최대 무역적자

- ‘15.8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3,013억 엔 늘어난 5,697억 엔 적자로 5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함께 ‘15.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적자폭 기록
 -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729억 엔에서 4,855억 엔으로 확대,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469억 엔에서 4,636억 엔으로 대폭 축소
 -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
- 앞으로도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입증가에 의한 대폭적인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2015년 8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7	7.6	2.4	5.9	3.1	-11.7	50.1	6.8
수 입	6.9	-3.2	5.4	6.5	-3.1	-6.9	52.9	-6.4
수 지	-0.3	-72.3	282.9	-0.6	-40.2	112.7	-2.8	-70.5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8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전월대비 감소

- ‘15.8월 수출은 5조 8,815억 엔으로 전월비 11.7% 감소
 - 전년 동월비로는 3.1% 증가
 - 수출물량도 전월비 11.6% 감소, 전년 동월대비로는 4.2% 감소
- 중국경제의 감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경제의 호조에 가세한 엔저기조 정착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포함된 가운데,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감소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순위	품목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906	9.6	1.3	8,576	11.1	-21.4	75,907	9.8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26	9.0	2.8	3,390	3.9	-1.1	26,101	11.9
3	철강	3,113	10.6	1.6	2,929	-8.2	-6.0	25,588	-0.5
4	자동차부품	3,169	3.4	9.8	2,591	-2.0	-18.2	22,891	2.0
5	플라스틱	2,135	1.8	3.1	1,987	-0.8	-7.0	16,429	4.3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 對 EU 수출, 對 미국 수출의 감소폭이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7.1% 감소

<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

순위	국가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3,408	18.8	2.9	11,358	11.1	-15.3	100,131	16.2
2	중국	11,797	4.2	1.7	10,641	-4.6	-9.8	87,169	1.6
3	ASEAN	9,867	6.1	1.5	9,076	2.0	-8.0	78,602	10.6
4	EU	7,118	10.0	7.0	5,950	-0.2	-16.5	51,962	5.1
5	한국	4,512	3.1	-2.4	4,193	-2.5	-7.1	36,483	3.5
6	대만	4,058	10.5	0.9	3,691	8.8	-9.0	30,005	8.5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8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5.8월 수입도 6조 4,511억 엔으로 전월비 6.9% 감소

- 전년 동월비로는 3.1%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5.2% 감소, 전년 동월비로는 0.7% 감소

- 앞으로는 유가와 같은 수입가격 요인 외에 경기회복에 의한 수입량 증가도 예상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의류·동부속품, 의약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의류·동부속품의 순위가 높아짐
- 수입증가품목은 의류·동부속품, 의약품, 액화천연가스의 순으로 증가폭이 큼
- 수입감소품목은 원유,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

순위	품목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8,823	-24.6	31.1	7,649	-32.9	-13.3	58,319	-39.1
2	액화천연가스	3,956	-40.7	7.9	4,150	-30.2	4.9	39,509	-23.6
3	의류·동부속품	2,833	8.7	24.7	3,449	12.0	21.7	21,653	7.3
4	의약품	2,676	25.4	14.0	2,877	53.6	7.5	18,365	23.1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650	19.9	4.6	2,329	3.2	-12.1	19,913	6.8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모두 수입이 전월보다 감소한 가운데, ASEAN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10.3%로 가장 크고, 이어 한국, 중국, 호주, 미국, EU 순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9.3% 감소

< 2015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6,526	13.5	5.1	15,495	14.6	-6.2	109,813	-9.0
2	ASEAN	10,413	0.7	4.5	9,342	0.3	-10.3	69,996	-13.3
3	EU	7,906	13.5	13.5	7,685	21.8	-2.8	48,127	-10.8
4	미국	6,939	7.5	-4.1	6,722	5.4	-3.1	41,999	-15.4
5	호주	3,613	-22.4	9.0	3,484	-16.5	-3.6	25,607	-24.5
8	한국	2,766	-8.9	-0.9	2,510	-4.1	-9.3	19,324	-16.8

자료 : 일본 재무성

3. 엔고 · 저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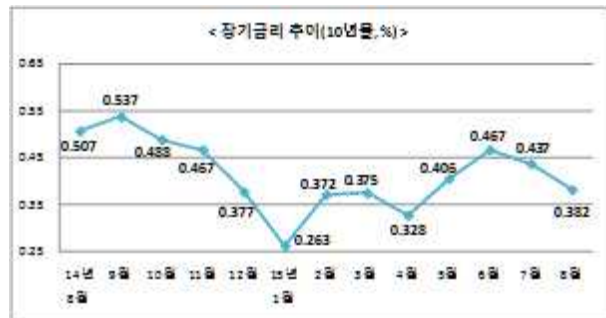
- ‘15.8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2.2% 하락한 19,919엔
- 9월 들어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주가하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18,000엔대까지 하락

□ (금 리)

- ‘15.8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6% 하락한 0.38%
- 9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9월 17일 기준 0.365%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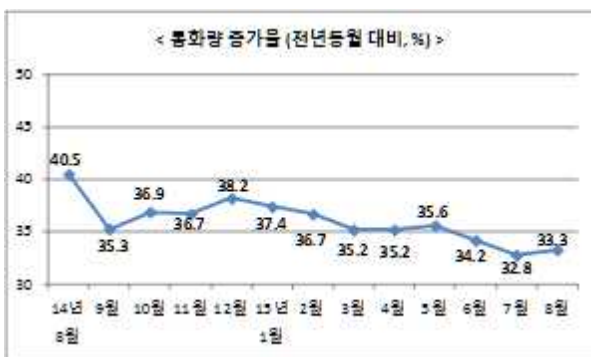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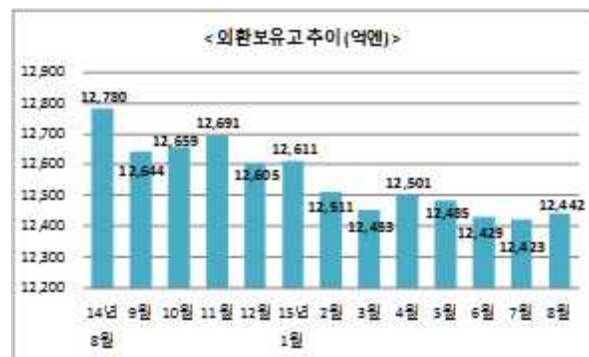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8월 본원통화(머니테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3.3%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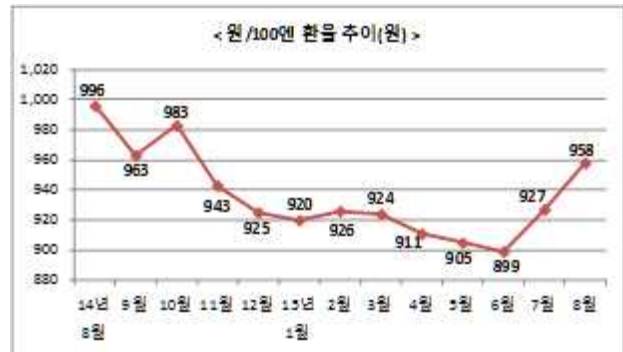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8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과 같은 123.2엔
- 9월 들어서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엔고 진행, 9월 18일 기준 119.8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 달러당 약 100엔)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조정 가능성이 큼
- ‘15.8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8원으로 전월의 927원에 비하여 3.3%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 **(동향)** 투자규모가 큰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

○ '15년 7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1,399억 엔으로 전월비 83.2% 증가로 반전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 액		131,946	125,929	13,833	9,244	10,023	20,757	6,223	11,399
증가율	전기비	34.9	-4.6	16.2	-33.2	8.4	107.1	-70.0	83.2
	전년동기비	34.9	-4.6	113.3	28.2	-51.3	177.1	-11.4	39.6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폭 커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349.1%로 가장 크고, 이어 아시아,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폭이 큰 한편, 對 미국 투자도 마이너스(투자 철수)에서 1,143억엔으로 반전

- 對 중국 투자는 21.3% 감소한 반면, 對 한국 투자는 8%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2014년		2015.6월			2015.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6,223	-70.0	-11.4	11,399	83.2	39.6
아시아	37,617	-4.3	2,541	-62.6	-10.5	4,529	78.2	54.1
중 국	7,150	-19.3	973	24.6	16.4	766	-21.3	67.6
한 국	3,328	3.7	412	343.0	104.9	445	8.0	-1.8
북 미	46,264	1.2	-124	-	-	1,176	-	-
미 국	44,365	3.3	-167	-	-	1,143	-	-
중남미	7,710	-22.1	867	-53.2	335.7	1,169	34.8	220.3
유 럽	26,310	-16.7	2,486	-20.8	55.2	3,909	57.2	42.4
대양주	5,963	1.2	280	-95.6	-56.7	262	-6.4	95.5
중동	527	-	117	244.1	-41.2	98	-16.2	53.1
아프리카	1,539	205.4	57	-67.1	-77.3	256	349.1	20.8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8월 20일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77% 증가한 7조 1,685억 엔으로 연간 과거 최고였던 2012년을 상회

-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A가 증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금융완화정책과 엔·달러 환율 전망

□ 금융완화의 현상유지

- 일본은행은 9월 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신흥국의 경기 감속과 이에 따른 일본 국내 수출과 생산에 대한 악영향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연간 80조엔 규모의 금융완화는 현상유지하기로 함
- 현재 물가하락이나 총 수요의 부진 등 작년 10월 추가 금융완화 시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일층의 추가완화는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만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임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유가동향에 따라서는 2% 물가상승율 목표달성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발언, 2016년 전반으로 설정된 2% 물가상승목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
- 또한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
 - 물론 물가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추가완화를 실시한다고 하여 추가완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행은 당분간 현행 금융완화를 실시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중국경제의 감속 우려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추가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경제에 대한 일본은행의 진단

- 일본 국내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
 - 기업실적과 고용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는 소비도 서서히 회복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율도 최근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유가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는 상승해나갈 것으로 전망
- 구로다 총재는 예상물가상승율도 포함하여 물가기반이 탄탄한 편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로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으면서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을 들면서 기업과 가계의 물가상승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현행 금융완화를 계속함으로써 2016년 상반기에는 2%의 물가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수출환경에 대해서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감속을 우려, 수출생산 전망을 하향수정

□ 일본경제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진단

- 그러나 실물경제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강조하는 만큼 견조하지 않아, 그동안 일본은행이 실시해온 이차원 금융완화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 9월 16일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강등
 - 아베노믹스가 2-3년내 성장회복과 디플레이이션 탈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임
- 최근 월스티리트저널(WSJ)도 일본의 양적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저평가하고, 추가경기부양책 검토, 소비세추가인상의 연기 가능성 등을 전하면서 이같은 노력이 일본경제의 신뢰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
- 실제로 2015년 2분기 실질 GDP가 -1.2%로 1분기의 4.5% 성장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가운데, 식료품의 가격인상으로 연금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
 -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도 세계적인 주가하락 등 시장의 혼란으로 주춤

- 2% 목표를 설정한 소비자물가상승율도 2개월째 0%대에 머물러있어 디플레이션 탈출가능성이 희박
- 무역수지도 중국의 경기감속 등으로 8월 무역수지가 5,697억 엔으로 7개월 만에 최대적자폭을 기록

□ 추가완화의 가능성과 그 변수

-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기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저없이 조정할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
- 그러나 추가완화를 둘러싸고는 대내적으로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내적인 관문의 하나가 가계 부담을 의식하기 시작한 일본정부임
 - 아베 총리는 최근 경제자문회의에서 휴대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
 - 이와 관련하여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와의 생각차이에 대해서는 구로다 총재는 분명히 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추가완화로 인한 엔저가속으로 수입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식료품 등 생필품의 가격인상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됨
 -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의 10% 재인상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일본정부가 확실히 단행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만약 소비세 재인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은행으로서도 추가 금융완화가 불가피함
 - 금융완화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려해도 효과나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임
 - 이에 일본정부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도 관문임

- 미국 FRB가 금리인상에 착수하든 않하든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엔·달러 환율 전망

- 엔·달러 환율은 중국경제의 감속과 추가급락이라는 중국쇼크로 8월 24일 116엔까지 강세로 전환, 이후도 119엔대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 쇼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는 맞물려 당분간 엔·달러 환율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변수로 등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엔저 시나리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머지않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앞으로 중국 정세가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엔고의 진전·정착 시나리오도 가능
 - 그 경우에도 엔·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하락폭이 6.8엔(미국의 2년물 채권금리를 기본으로 계산하여 동 금리가 하락한 경우라도)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현실적인 문제로서도 엔고가 정착되게 되면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관측이 높아짐으로써 엔화 강세는 억제될 수 있게 됨
- 따라서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로 선회하지 않는 한, 110엔 이상의 엔고가 정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감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고폭이 커질 위험은 종래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 (중 합)

- ‘15.8월 대일무역적자는 7월보다 233백만 달러 감소한 1,566백만 달러로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 이는 대일수입과 대일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축소균형의 무역적자 축소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6%에서 4.8%로 상승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2%에서 9.9%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1%에서 7.2%로 상승

< 2015년 8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150	-28.1	-3.8	1,898	-24.7	-11.7	17,355	-20.0
대일 수입	3,949	-14.8	-1.6	3,464	-17.9	-12.3	31,249	-12.4
무역 수지	-1,799	159	21	-1,566	-131	-233	-13,893	-59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8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11.7% 감소, 전월보다 감소폭이 큼
 - 이 같은 감소폭은 총수출의 감소폭 -14.2%보다는 적으나 일본의 수입감소폭 -6.9%보다는 큼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7월	-28.1	-3.8	-3.4	-0.1	-3.2	5.4
2015. 8월	-24.7	-11.7	-14.9	-14.2	-3.1	-6.9
2015.1-8월	-20.0	-	-6.3	-	-6.4	-

- ‘15.8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광물성연료, 금속광물, 정밀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감소
-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33.6%로 가장 크며, 이어 석유화학제품과 산업용전자제품의 대일수출도 30% 전후의 큰 감소폭을 보임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이 23.8%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2015년 8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150	-28.1	-3.8	1,898	-24.7	-11.7	17,355	-20.0
1	광물성연료	243	-63.4	-17.3	288	-50.1	18.5	2,369	-47.1
2	철강제품	241	-30.5	-3.6	238	-23.8	-1.4	1,989	-28.1
3	전자부품	210	8.1	4.0	186	2.7	-11.4	1,564	-3.2
4	정밀화학제품	122	-14.9	-14.1	127	14.2	4.0	964	-4.4
5	금속광물	84	-4.9	2.4	104	7.8	23.8	706	-1.4
6	석유화학제품	132	-31.7	-10.2	92	-32.3	-30.3	937	-16.0
7	산업용전자제품	125	-51.7	-35.2	88	-46.0	-29.6	1,668	-8.0
8	수송기계	122	3.0	18.4	81	-11.5	-33.6	803	-5.9
9	농산물	83	-14.5	-6.7	73	-16.8	-12.0	659	-10.2
10	기계요소공구·금형	89	-23.9	9.9	70	-19.2	-21.3	630	-1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8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12.3% 감소, 전월보다 감소폭이 큼

- 그러나 총수입의 감소폭 -18.3%보다는 적어 대일수입의존도 저하로 이어짐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7월	-14.8	-1.6	-15.3	5.9
2015. 8월	-17.9	-12.3	-18.3	-10.0
2015.1-8월	-12.4	-	-15.8	-

○ '15.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

- 산업기계의 감소폭이 -32.0%로 가장 크고,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등도 -25% 이상 큰 감소폭을 보이는 등 자본재의 대일수입수요가 크게 감소

< 2015년 8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7월			2015.8월			2015.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3,949	-14.8	-1.6	3,464	-17.9	-12.3	31,249	-12.4
1	전자부품	515	0.2	9.8	503	-7.1	-2.3	4,047	1.2
2	철강제품	464	-38.9	-11.1	449	-32.6	-3.2	4,016	-29.1
3	석유화학제품	431	-25.3	3.1	364	-29.2	-15.5	3,379	-15.1
4	정밀화학제품	313	-18.0	-1.6	299	-8.5	-4.5	2,542	-12.1
5	기초산업기계	298	8.7	-0.7	223	-19.9	-25.2	2,090	-10.7
6	정밀기계	244	67.8	26.4	173	9.5	-29.1	1,909	17.2
7	수송기계	212	-2.7	-3.6	159	-21.2	-25.0	1,634	-1.1
8	산업용전자제품	212	-3.3	-8.2	182	-7.7	-14.2	1,709	-11.7
9	플라스틱제품	198	-22.2	2.6	182	-20.6	-8.1	1,570	-18.2
10	산업기계	194	-22.4	3.2	132	-28.0	-32.0	1,368	-1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 (동 향) ‘15.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대폭 증가

- ‘15.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84백만 달러로 전기비 136.7%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5%를 크게 상회
 - 건수는 전기비 0.2% 감소
 - 전분기 급감에 따른 반작용과 건당 투자규모 확대의 영향도 증가 반전에 기여
- ‘15.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973백만 달러로 전기비 27.3% 감소
 - 건수는 2.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년.1분기		2015.2분기		2015.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5 (-17.5)	289 (-66.0)	84 (-0.2)	684 (136.7)	169 (-2.9)	973 (-27.3)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558 (-25.2)	3,555 (-15.1)	742 (33.0)	5,316 (49.5)	1,300 (-0.7)	8,871 (2.3)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도레이가 LG화학 오창공장 설비를 약 30억엔에 매입,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BSF)의 100% 출자 자회사를 현지에 설립하고, 약 1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2015.9.16. 닛케이)
- 일본의 금속표면처리 기업인 파커라이징이 2019년까지 모두 50억 원(외국인직접투자 500만 달러)을 투자해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1만5천㎡의 부지에 방청유 및 세정제 생산 공장을 설립(2015.8.11. 아시아경제)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8월~2015.9월)

□ 국내 기관

- 『아베노믹스 발목잡고 있는 일본의 노동개혁』 LG경제연구원, 2015년 9월22일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691>
- 『[일본경제연구회] 일본의 장기침체가 한국에 주는 시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9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517>
- 『아베노믹스 평가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9월18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363
- 『대일(對日) 캐치업 이후의 한국 제조업』 산업연구원, 2015년 9월16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9&state=view&idx=51595&ord=0
- 『한중일 철강 수출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년9월16일
<https://www.posri.re.kr/report/lists>
-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 한국은행, 2015년 9월15일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2229>
-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9월15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359
- 『일본에서 배우는 아프리카 자원개발 - 적극적인 자원개발 유도해야』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년 8월26일
https://www.posri.re.kr/report/view/board_id/2294/page/

□ 일본 기관

- 『일본의 경상흑자 구성변화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 국제통화연구소, 2015년 9월19일
http://www.iima.or.jp/Docs/topics/2015/272_j.pdf
- 『생활서비스 산업이 2025년 사회를 바꾼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9월15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078.html>
- 『모노즈쿠리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 산업집적을 활용한 자립적 전개』, 조요우 지역연구센터, 2015년 9월12일
<http://www.arc.or.jp/ARC/201509/ARC1509gatu/1509ronnsetu.pdf>
- 『동아시아와의 FTA가 효과적인가 : ACFTA/AFTA와 일본의 FTA를 이용한 서플라이체인 형성을 모색』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5년 9월10일
<http://www.iti.or.jp/>
- 『일본의 수출구조 분석 :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미수출의 과제』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5년 9월10일
<http://www.iti.or.jp/>
- 『중국의 주가하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EY종합연구소, 2015년 9월10일
<http://eyi.eyjapan.jp/knowledge/future-society-and-industry/2015-09-09.html>
- 『ICT의 경제 분석에 관한 조사(2014년)』 일본 총무성, 2015년 9월4일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linkdata/ict_keizai_h27.pdf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시장에 관한 조사결과(요약)』 야노경제연구소, 2015년 9월3일
<http://www.yanoict.com/report/10744.html>
- 『엔저에 따른 리세어링(제조업의 국내회귀) 가능성(후편)』, 일본경제연구소, 2015년 9월2일
http://www.jeri.or.jp/membership/pdf/research/research_1509_01.pdf
- 『제4회 한일 다이어로그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5년 9월2일
http://www2.jiia.or.jp/pdf/resarch/H26_JapanKoreaDialogue/H26_JapanKoreaDialogue.php
- 『TPP는 메가 FTA의 기폭제, 일본의 성장전략』 미즈호종합연구소, 2015년 8월29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today/rt150828.pdf>

2. 주요 경제 일정

<9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1	• 전력거래감시 등 위원회 발족(경산성)
4	• G20 재무장관회담(앙카라)
7	• 일-터키 EPA 교섭
	• 7월 경기동향지수(내각부)
8	• 7월 국제수지(재무성)
	• 2분기 GDP 개정치(내각부)
9	• 한일 상공회의소회장단 회의(후쿠오카)
10	• 7월 기계수주(내각부)
12	•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도쿄)
16	• 8월 방일방문객 수 발표(일본정부관광국)
19~20	• 한일 축제 한마당(서울)
23	• 미얀마 티라와공단 준공
25	• 9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 8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26~27	• 일한축제 한마당(도쿄)

<10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26~27	• 한일재계 회의(도쿄)
29~30	• 한일/일한재단 연락협의회
미정	• 한중일 통상장관회담 예정(서울)